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 + 마이클 모렌, 이영민 엘리사벳 가정

+ 6월 미사 기도 지향은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하는 공동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주일학교 행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6월 첫주간 미사 안내

- 5.31(화), 오후 19:30 평일미사
- 6. 2(목), 오전 10:00 평일미사
- 6. 3(금), 오전 10:00 예수성심미사 (9:30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미사 후 병자영성체 있습니다.
- 6. 4(토), 오전 10:00 성모신심미사 (미사 중 묵주기도)

이번달 구역모임은 쉽니다.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68	219	165	24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정채린 소피아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안광민 야고보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주	김대연 요셉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22	75명	380불	680불
현영애, 김대연, 김호원, 박재천, 정수한 (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며 교회가 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성찬의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길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기로 다짐합니다.

### 성화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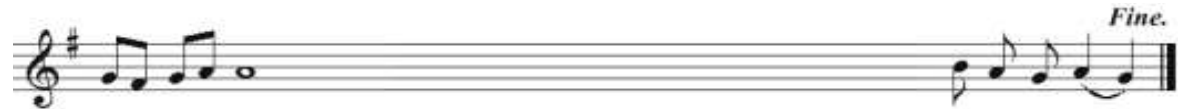
#### 성체성사를 세움 (프라 안젤리코, 1441-1442, 성마르코 수도원)

성체를 받아 모심은 신앙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4,18-20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화답송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뿜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나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23-26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 쉐 마

## 예수님의 몸과 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임금들을 물리치고 롯과 가나안 임금들의 소유들을 되찾아오자, 소돔 임금은 오늘날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임금 골짜기까지 마중 나옵니다. 당시 살렘이라고 불리던 이곳 예루살렘의 임금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던 사제였던 멜키체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멜키체덱, 곧 하느님께 바칩니다. 또한 자신이 되찾아온 모든 것을 소돔 임금에게 돌려줍니다.(창세 14,17-24)

이 장면은 매일같이 거행되는 미사 성제를 연상시켜줍니다. 히브리서는 멜키체덱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었음을 보여주는데,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하시고, 그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히브 7,1-28)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에게 내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동참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멜키체덱의 품위를 이어받은 정의의 임금이며 평화의 임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멜키체덱을 넘어서는 분으로 멜키체덱의 품위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서 얻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멜키체덱의 품위를 이어받은 이가 있었는데,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2사무 5,6-12; 2사무 7,1-3) 사울이 아니라 멜키체덱의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의 시편 110장은 다윗을 두고 멜키체덱의 품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사제라고 외칩

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을 두고 하는 이 노래가 실은 예수님을 향한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제도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성전도 짓지 못했지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묵시 21,22)은 당신의 몸과 피를 봉헌하신 대사제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멜키체덱의 품위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희생 제사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계속 구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것, 곧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라고 명하십니다.(루카 9,13)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십분의 일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이 아닌, 소돔 임금의 소유를 모두 소돔 임금에게 돌려준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내어놓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멜키체덱의 품위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구현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신앙의 길로 초대하라고 명하십니다.

매일같이 미사성제를 거행하고, 매년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데도, 특별히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축일을 제정해서 당신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되고 살아 있는 음식임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몸과 피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더욱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사도 바오로의 영적 아들 디모테오

사도 바오로가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디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사도 바오로는 디모테오의 거짓 없는 믿음과 투철한 신앙심을 칭찬했습니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테오에게 에페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어떤 구체적인 당부를 하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티모 1,3-7

사도 바오로는 영적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테오에게 마치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산 당하였다고 하면서 디모테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디모테오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어떤 기준을 이야기합니까?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티모 3,1-7

사도 바오로는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거짓 신앙인들을 질책합니다. 또한 혼인을 금지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음식들을 끊으라는 요구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티모 4,1-16

사도 바오로의 제1차 전도여행 때 디모테오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에우니케가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테오의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전해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사목자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뒤에서 기도와 희생으로 사목자의 큰 용기와 힘이 되어줍니다. 디모테오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위대한 사도 바오로에게도 강한 인상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디모테오는 비교적 소심하면서도 심성이 자애로웠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디모테오를 충실한 모방자이며 협력자, 절친한 친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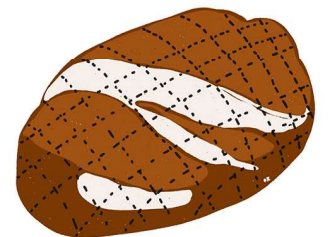
## 눈앞의 기적

빵 하나를  
천 조각으로 나누었거든

빵 하나를  
천 개로 만들었거든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배불리 먹었고  
우리 모두 행복했답니다.

눈앞의 기적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루카 9,17)

- 임의준 신부